

제 목	국 문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위한 지역사회진단의 사례		
	영 문	Community Diagnosis as a Preliminary Study of Regional Health Pla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박정휘.김혜란.민점남.문옥인.김재순.신선영.박은영.박형철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영 문	JH Park, HR Kim, JN Min, OI Moon, JS Kim, SY Shin, EY Park, HC Park <i>Kwangju Donggu Health Center</i>		
분 야	보건관리(보건소)		발 표 자	박 형 철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O) → 완료 예정 시기 : 96년 10월			
<p>1. 연구 목적</p> <p>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지역보건의료계획, (구)민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고, 자치구 보건소 단위의 진단을 실시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구민들의 건강상태 및 보건문제 파악 ②보건의료 목표설정을 위한 보건지표산출 ③보건지표 등을 구단위 보건소에서 활용가능성 탐색 ④각종 보건지표등 산출을 위한 원시자료에 자치단체에서의 접근가능성 등이다. <p>2. 연구 방법</p> <p>인구,사회 경제적 상태와 지역내 보건의료 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조사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시 또는 구에서 발간되는 통계연보 및 공문서등 행정자료를 정리 분석하였다. 사망관련 통계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사는 국가단위 통계조사의 일부를 구단위내에서 정리 분석하였다. 사망원인, 사망을 조사는 최근 1년간 동(洞)을 통해 사망신고서 사본을 수집, 각종 사망원인 및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사망원인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3차개정. 95. 1. 1)의 원사인선정 준칙을 토대로 하였다. 사망원인(原死因, Underlying cause of death)의 신빙성 있는 선정을 위하여 의사 2인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기재토록하여 비교검토후 채택하였다. 영아사망율의 경우 95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93년 영아사망율 조사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93년 분만아를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96년 9월 30일 현재 생존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1년 이내 사망자를 역추적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신생아 사망율, 후기신생아 사망율을 계산 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의 질병·상해양상과 의료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실시되는 환자조사를 정리 분석하였다. 또한 상병자료는 지역의료보험자료를 토대로 하였다.</p>				

예상되는 일부 보건문제에 대하여 단면조사도 실시되었다. 구강보건실태에 관한 조사, 관내 초등학생의 비만도 조사등이다. 후자의 경우 관내 초등학교를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계 표본 추출법을 이용, 신체계측 및 학부모대상 학생들의 식습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지역사회진단을 위한 다수의 구단위 보건통계, 지표가 산출되었다. 인구통계의 경우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인구 센서스를 통한 실거주민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사망통계의 경우 자료의 보편성이라는 장점과는 달리 구단위에서 분석할 경우 '사망'이라는 사건이 많지 않고 표준질병분류에서 257개항목군이나 소분류를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세분되는 한계를 보였다. 장기적 사망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상병통계는 의료보험자료를 활용할 경우 유용한 자료라 예상되었으나 공·교보험, 직장보험, 의료보호등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접근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듯 보였다. 영아사망을 조사의 경우 관내 분만의료기관 중심으로 조사되어 산모들이 중진료권(광역시내)내의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경우와, 상병통계를 지역보험가입자만으로 나타낸 경우 대표성이나 일반화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사망자료 수집, 환자조사등 국가단위 통계사업을 잘 활용할 경우 좋은 지역 사회 진단자료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 ①보험자료등 일부자료의 접근이 어렵고,
- ②조사·분석에 대한 인식, 예산 및 인력의 부족,
- ③통계사업이 국가중심으로 되어있는 점 등은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